

네오크레마(311390)

항비만 기능성 펩타이드 DNF-10, 비만치료제 시장과 동반성장



Stock Data

2025. 12. 22 종가 기준

• 현재주가	6,140원
• 시가총액	777억원
• 발행주식수	12,653,789주
• 52주 최고가	11,120원
• 52주 최저가	4,920원
• 외국인지분율	3.64%
• 유동주식비율	54.42%

INVESTMENT

SUMMARY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능성 식품소재 기업, 기능성 당 및 펩타이드 전문
항비만 기능성 펩타이드 DNF-10(Eatless®)의 해외 수요 확대
펩타이드 매출의 약 90%가 해외 B2B 공급에서 발생, 안정적 구조 유지
액상 설비 호환 운영을 통한 유연한 생산 체계 통한 효율적 수요 대응



주요주주

아시아홀딩컴퍼니외인	44.88%
대호에이엘	8.18%
자사주	0.70%



Contact



Analyst **박창운** RA 김범태

research@glstory.co.kr

現 지엘스토리 대표
금융투자분석사 포함 다수 자격 보유
前 메리츠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분기별 연결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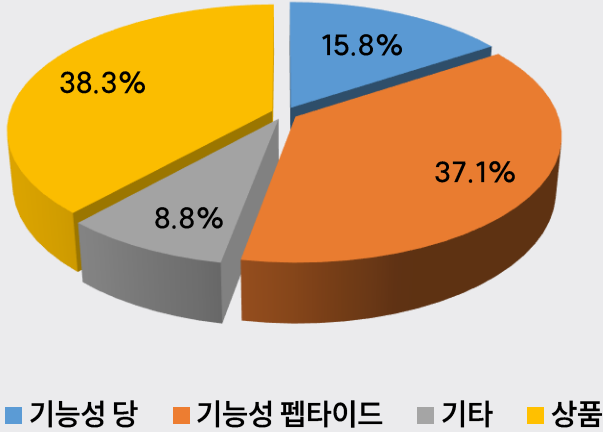
	4Q24	1Q25	2Q25	3Q25
매출액(억원)	227	208	214	181
영업이익(억원)	9	28	33	5
당기순이익(억원)	4	29	15	17
OPM(%)	4.08	13.30	15.23	2.56
EPS(원)	3	93	102	81
PER(배)	102.69	25.23	54.06	33.36
BPS(원)	5,634	5,668	5,824	5,897
PBR(배)	0.97	0.75	2.29	1.55
ROE(%)	1.07	5.02	1.68	4.98
ROA(%)	0.75	4.35	2.73	3.72

자료 출처: DART, 에프앤가이드, 지엘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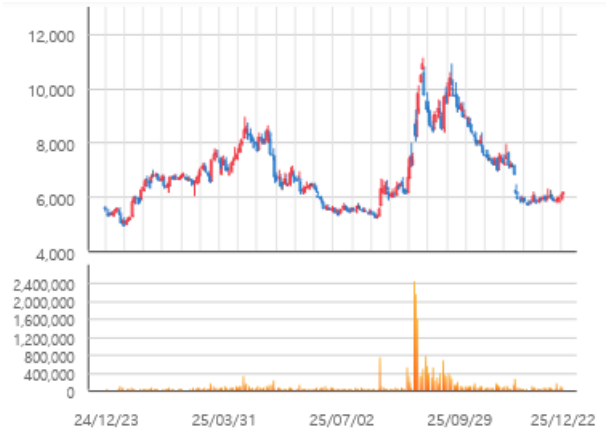
지엘리서치 공식 홈페이지
<http://glstory.co.kr>



별도 기준 매출 현황 (2025 1~3Q 누적)



주가 및 거래량 추이 (최근 1년)



자료 출처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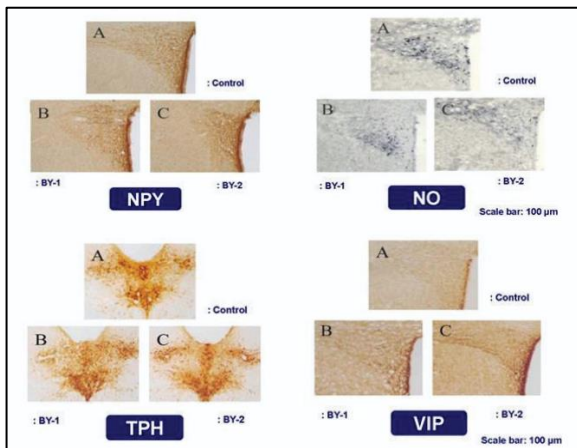
비만 트렌드 수혜 속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한 펩타이드 사업

네오크레마(이하 동사)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능성 식품소재 기업으로, 기능성 당과 펩타이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 당 섭취 감소 기조와 비만 문제가 부각되면서, 저GI·프리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탄수화물과 기능성 펩타이드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펩타이드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5년 1~3분기 누적 기준 기능성 펩타이드 매출은 88.24억원으로, 별도 기준 매출의 37%를 차지하며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항비만 기능성 펩타이드 DNF-10(Eatless®)에 대한 해외 수요 확대가 실적에 본격 반영된 결과다.

DNF-10은 비만치료제 확산과 함께 식욕 조절 및 체지방 관리에 대한 보완 수요가 증가하며 약물 치료를 보조하는 기능성 원료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해외 중심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동사의 기능성 펩타이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DNF-10 투여군과 비투여군의 식욕 조절 펩타이드 변화



자료 출처: 네오크레마, 지엘리서치

DNF-10 NON-GMO 인증 획득



자료 출처: 네오크레마, 지엘리서치

Eatless®(DNF-10)_섭취행동과 대사를 동시에 겨냥한 항비만 펩타이드

Eatless®(DNF-10)는 저분자 효모 유래 펩타이드로,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섭취행동과 대사 이상을 동시에 겨냥한 기능성 원료다. 해당 소재는 식욕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 균형에 작용해 그렐린 분비를 억제하고 렙틴 분비를 촉진하는 한편, 지방산 합성 억제와 체지방 축적 감소, 지질대사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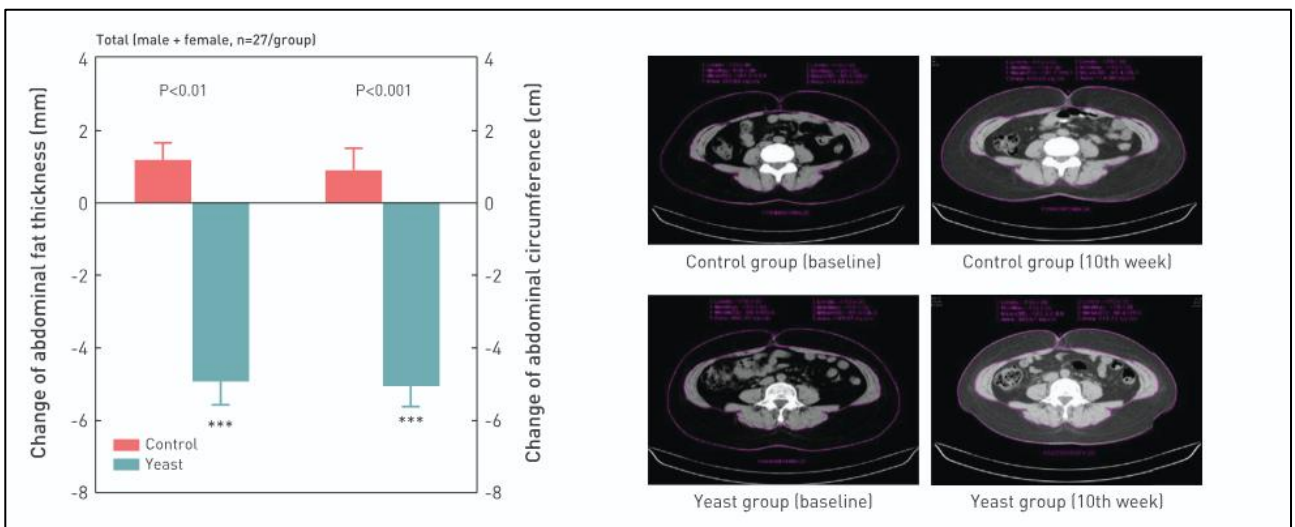
이러한 기전은 단순한 체중 감량 보조를 넘어, 장기적인 체지방 관리와 식이조절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식욕 억제 및 항비만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음료·정제·젤리 등 다양한 제형에 적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이처럼 섭취행동(식욕)과 대사 기능(지방·지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DNF-10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중국·미국·태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다이어트 및 체중 관리용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동사의 기능성 펩타이드 생산실적은 2024년 44.5톤에서 2025년 3분기 누적 101.4톤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기능성 펩타이드 매출 88.24억원 중 수출(79.38억원)이 내수(8.87억원)를 크게 상회한다. 즉 DNF-10을 포함한 펩타이드 사업은 해외 고객 기반의 B2B 공급망에서 매출이 만들어지는 안정적이고 성장성 높은 구조로 해석된다.

수요가 빠르게 변하는 비만/건기식 시장에서 원료의 경쟁력만큼 중요한 것이 공급 대응력인데, 동사는 액상 제품 설비를 호환 운영하여 기능성 당과 기능성 펩타이드의 생산능력을 유연하게 조절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동사는 기능성 펩타이드 생산능력을 2024년 60톤 → 2025년 150톤 규모로 확대하며 증가한 수요에 대응했다.

DNF-10 섭취군과 비섭취군 복부 지방, 복부 둘레 비교



자료출처:네오크레마,지엘리서치

GLP-1 확산과 비만 인식 전환, 관리 시장의 확대 따른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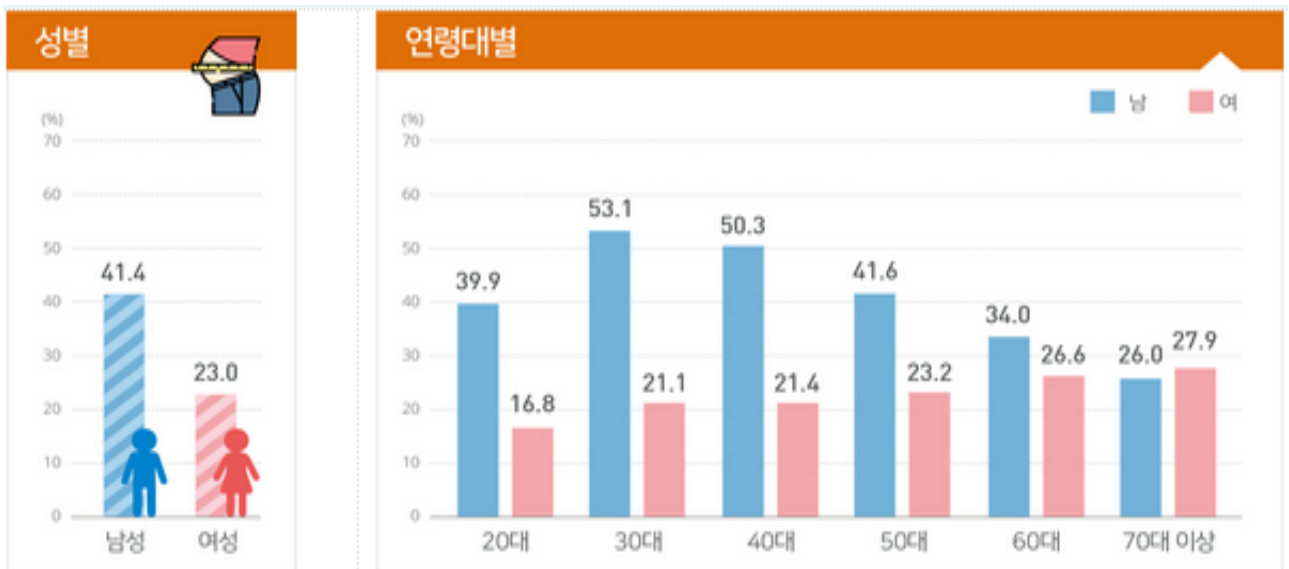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내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의 생리적 작용을 기반으로 한 약물로,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의지나 생활습관 문제에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비만은 더 이상 미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정책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탈모와 비만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횡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면 급여가 아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의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논의는 확산과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정책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급여화 논의와 병행해 오남용·과다처방 방지를 위한 관리·감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약물 사용이 확대될수록 치료 효과의 지속성과 부작용 관리를 위해 영양 관리, 섭취 행동 교정, 체성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 이는 비만치료제가 단독으로 소비되는 시장이 아니라,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수요가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다.

성별/연령대별 비만율(2024년 기준, 단위 :%)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리포트 발행내역

1회차
2025. 12. 23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 종목의 경우,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지엘리서치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복제 및 대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